

고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

박 경 관 · 이 영 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우리 사회의 고부관계는 예로부터 갈등관계로 인식되어져 왔다. 핵가족화, 여성취업 등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부관계는 복잡하고 갈등적인 가족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유무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법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첫째,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한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며느리의 대처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한 셋째, 대처유형과 스트레스 정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북과 경남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시모가 생존해 있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대립되었는지, 마음이 속상했다든지, 실망을 느낀 일이 있었다면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에 대한 질적 조사(58명)와 27개의 스트레스 원인과 22개의 대처행동에 대한 양적 조사(283명)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간섭행위, 관심욕구, 경제적 부담, 자녀교육, 차별대우, 생활습관의 6유형으로, 이 중 생활습관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며느리의 취업여부, 경제수준, 며느리위치, 동거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대처는 회피억압,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호소, 직접표현 등 5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적극적 이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직접표현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며느리의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며느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법은 회피억압,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호소, 직접표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중 적극적 이해를 제외한 4유형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이해가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부간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여부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측면이 더욱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말하기와 듣기 등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며느리와 취업 며느리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